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혁남



필자는 지난 며칠 동안 3통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 전화를 연거푸 받았다. 2번은 집 전화로, 한번은 휴대전화를 통해 받았는데, 모두가 조사원의 생목소리가 아닌 사전에 녹음된 ARS조사였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지 궁금하여 녹음내용을 끝까지 다 듣고 해당되는 번호를 누르려고 하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다. 정신없이 바쁜 시간에 집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어 황급히 받아보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박근혜 후보는 1번, 문재인 후보는 2번, 안철수 후보는 3번, 기타 후보는 4번을 눌러 주십시오요”라는 기계음을 듣고 짜증이 안 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우리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나 선거 여론조사가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선거공해로 변질되고 말았다. 가수 싸이 말고는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없는 우리나라가 어느새 세계에서 제일가는 선거 여론조사공화국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선거 여론조사공화국이라

고 부르는 것은 비단 넘쳐나는 여론조사 건수만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마저 뽑고 있다. 심지어 정당간의 단일화 후보도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내고 부르는 것은 비단 넘쳐나는 여론조사 건수만을 두고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통해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마저 뽑고 있다. 심지어 정당간의 단일화 후보도 여론조사를 통해 만들어내

기까지 한다.

이런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다간 국민의 직접투표 대신에 아예 여론조사만 가지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자는 얘기가 나올지 모를 지경이다.

여론조사가 이처럼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모두 여론조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이러니라 하겠다. 후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결정과 선택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방법에 의존한다는 것은 난센스이자 정치 도박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이 서로 달라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춰야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렇게 조사마다 결과가 다른 것은 조사방법, 표본추출, 질문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언론사들이 값싼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는 돈들이 만만 나온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싸구려 조사기관들의 낮은 단가, 전문성 부족, 조사원칙 무시 등이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싸구려 조사 회사들은 주로 ARS 조사를 하고 있다. ARS는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ARS조사에서는 인지도가 높고, 열성 지지자가 많은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실제보다 많이 나오게 되어있다.

본질적으로 여론조사는 과학이면서 동시에 기술이다. 딱딱하고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독자들이 흥미롭고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학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기술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다육이 과학성보다는 기술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둔다면 그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포장한 상업적 저널리즘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여론조사의 생명은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프랍스처럼 여론조사의 질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저질의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되거나 공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제는 심각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감독기구가 생긴다면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사 또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정확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의 만능이 아니며,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된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일이다. 그래서 38.6% 등의 소수점 이하의 수치로 치장한 여론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 결과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박재순

업무 특성상 집무실을 벗어나 농·어촌 현장을 찾을 때가 많다. 전국 곳곳을 다니지만 아무래도 농도(農道)인 전남지역 방문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현장을 찾게 된다. 지난 3월 착공한 우리 공사 신사옥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진척상황을 점검하며 둘러하기 위해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지상으로 건물이 올라서기 시작했다. 우리 공사는 2014년 9월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15개 이전 대

상기관의 신사옥 공사가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현장을 들릴 때마다 2만 가구, 5만 명 인구를 수용하는 자족형 신도시의 미래모습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예정대로 가능하더라도 혁신도시의 자족성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혁신도시의 가장 큰 인적구성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들의 이주 문제이다.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은 했으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한 결과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이 이주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러 이유

가 있었지만 혁신도시가 살기 편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국무총리실 6개 부서 이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9부 2처 2청이 3단계로 걸쳐 이전하는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이유로 통근 버스를 운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주하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서 장기간 출·퇴근하면 교육·문화·의료시설의 설치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세종시의 자족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주 혁신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통근버스 운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오히려 생활여건이 완비된 인근지역으로 정착하거나 단독으로 내려와 주말에 서울로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다. 이는 오히려 혁신도시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진정한 의미는 공공기관의 지

방이전을 통해 소속 직원과 가족들도 이주함으로써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수단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성공적 이전 못지않게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종시 통근버스 운행논란은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현재 공정대로라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에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유입을 통한 자족기능을 갖춘 혁신도시의 정착은 숙안하기에는 선부른 감이 없지 않다.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반쪽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에게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에 확신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본사 신축과 이전 작업 못지않게 삶의 질 향상과 살기 편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위한 교육·문화·의료시설 설치 등 기반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뇌와 마음

의료 칼럼



조상권

긍정적인 마음이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준다. 뼈, 인대, 근육, 연골 등의 외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의 경험으로 미루볼 때, 질병 이전의 유전·비만·감염·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고쳐먹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치료가 더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고(思考)가 잘못되면 사고(事故)난다. 생각을 바꾸어 습관, 체질을 바꾸면 유전병도 치료가 가능하리라 본다. 음식에 두드러기가 없다가 생기기도 하고, 있던 것도 없어지듯이 말이다. 그러나 사고를 바꾸기가 쉽

지 않다. 어떤 환자는 초기 무릎 관절염의 악화를 막기 위해 살을 빼야 되는데 평생 걸 들어진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들어 한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곧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성경에도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불경에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비슷한 뜻의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은 뇌에 있는 것일까, 심장에 있는 것일까? 철학적으로 히포크라테스는 처음으로 마음이 뇌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이 심장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플라톤은 인격과 지성은 뇌에, 두려움과 분노·욕기는 간에, 욕망·탐욕은 위장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마음은 뇌의 신경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뇌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것

은 19세기에 들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밝혀지고 나면서부터다.

행복한(긍정적) 생각은 기쁨, 흥분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우울한(부정적) 생각은 펩티드를 분비시켜 신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가짜 약을 진통제라 믿고 먹으면 뇌에서 진짜 약으로 받아들여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 같은 방법으로, ‘나는 아프지 않다, 괴롭지 않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가 비관적 사고보다 뇌에 있는 마약 체계를 효율적으로 자극해서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나쁜 생각이 몸을 버리게 한다. 생각은 직접적으로 건강, 습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뇌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했는데 최근 2005년경 영국 건강을 추가했다. 영국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삶의 의미,

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짜게 먹을까. 얼마 전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금량을 다르게 넣은 콩나물국을 갖고 조사했더니 70% 넘는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넣은 콩나물국을 선호했다고 한다. 우리 음식은 이런 국뿐만 아니라 반찬들에도 소금이 많이 첨가된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 0.4%에다 반찬으로 나온 제육볶음과, 계란찜, 김치 등에 들어간 소금의 양을 합하면 한 끼 급식에 나트륨량은 2200mg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는 세

계보건기구 1일 최대 권고량인 2000mg을 한 끼에 다 먹는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량으로 만드는 단체급식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직장인들이 자극적인 입맛에 걸려져 있어 더 문제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나트륨을 과섭취 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에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위암과 고혈압, 신혈관계 질환을 늘리고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주므로 가정부터 학교 등 단체급식장에서 저염도 식습관을 확립 나가야 할 것이다.

▲이준호·광주시 북구 윤정동

시설

새누리 ‘호남 구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가 연일 ‘불모지’인 호남 공약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그 진정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여당이 호남에 내놓은 그럴싸한 공약이 이번에도 반짝 선거전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도 당선 후 호남을 철저히 외면했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상대적으로 당에서 소외됐던 ‘호남 민심’을 꺼안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덧발’이었던 호남의 민심 변화가 감지돼 이 곳에서 20%대 지지율을 얻는다면 승리를 거머쥔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황우여 대표가 광주·시당으로 대표까지 옮겨 민심을 살피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지역 현안사업 중 내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서 삭감된 예산

이 상당수여서 새누리당의 ‘호남 구애’가 사실상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 가운데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비용은 1610억 원 중 1000억 원만 반영됐고, 문화산업의 기초가 될 CT연구원 건립비 지원도 70억 원을 요청했지만, 30억 원만 예산에 책정됐다. 전남도 역시 내년 F1코리아 그랑프리 운영비 800억 원 중 30%인 240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전혀 삭감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 지역화 합동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광주·전남도와 정책협의회에서도 지역 현안 사업에 진지한 논의 없이 서둘러 끝낸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무엇보다 광주·전남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남 민심을 얻는 지름길은 요란한 말보다 행동이다.

안전불감증이 빚은 영암 조선소 폭발사고

지난 31일 오전 8시9분께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 원당중공업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베트남인 40대 남성 근로자와 오모(47·여)씨 등 2명이 숨지고, 박모(36)씨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땅이 흔들릴 정도의 폭음과 함께 철관이 종잇장처럼 찢겨 나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고 한다.

부상자의 증언과 경찰의 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고도 여처구니없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씨는 “블럭 용접 작업을 위해 선박 내부로 진입했다가 가스 냄새가 심해 관리자에게 설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대로 진행했다”며 “어제 밤 퇴근할 때 누군가가 용접용 LP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의 한 관계자도 “두께 8mm가 넘는 철관이 찢길 정도라면 엄청난 가스 누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냄새가 심했는데 왜 작업을 실시했는지 의

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리자가 근로자의 말을 무시한,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가 아닐 수 없다.

또 작업장 위에는 보통 작업 시작 전후히 남아있을지도 모를 유증기나 유독가스 등을 빼내기 위해 환풍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허술한 안전관리·감독이 대형 사고를 부른 것이다.

도급이 빈번히 이뤄지는 조선업계 특성도 잦은 사고 원인이다. 도급업체는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불황에 쫓긴 하도급 업체는 인력, 시간 등 비용을 아끼려다가 안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큰 사고가 일어나면 잠시 긴장을 하다 잊혀질 만하면 다시 안전불감증이 도지는 게 우리 공사현장의 현주소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한다. 노동부는 하도급 관계의 문제점과 공사현장의 ‘대충대충’ 문화를 뜯어고칠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스크린과 브라운관이 ‘왕’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8월 개봉한 역사상 가장 흥로운 왕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을 주인공으로 한 ‘나는 왕으로소이다’가 적잖은 관객몰이를 했다. 이어 희대의 폭군으로 타일한 외교가로 당대와 현대의 평가가 엇갈리는 광해군을 새롭게 조명한 ‘광해, 왕이 된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

특히 당초 예상을 깨고 1000만 관객을 넘어서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하선’은 권위만을 내세운 왕이 아니라 천민이 돼서 백성의 고충을 이해하고, 비록 진짜가 아니지만 백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올바른 지도자에 대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하선’은 조선왕 최초로 청나라를 향해 자주외교를 천명하고 대동법을 통한 조세혁명을 단행해 관객들의 답답한 가슴을 뽐뽐리게 한다.

중전에게도 순수한 사랑을 보이며 동생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모습은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다가온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총념은 “다 버려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단 한가지, 나 총념 이두! 오로지 백성의 신뢰를 얻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것이야”라고 외친다.

대선을 앞둔 현재, 진정한 리더의 덕목에 대한 정답이 아닐까.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왕! 열풍



만병 부르는 짜게먹는 식습관...식탁에 소금을 줄이자

짜게 먹는게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개인의 취향인데 굳이 심하게 먹어야 마라 할 이유가 없잖느냐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짜게 먹으면 위암,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런 병이 자꾸만 국민들에게 많아지면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 나기 때문에 국가적 손실이 된다.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로 당뇨병의 경우 치료도 안 되는 것이 지속적으론 고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병들의 원인이 짜게 먹는 습관 때문이라면 이는 국가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

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짜게 먹을까. 얼마 전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금량을 다르게 넣은 콩나물국을 갖고 조사했더니 70% 넘는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넣은 콩나물국을 선호했다고 한다. 우리 음식은 이런 국뿐만 아니라 반찬들에도 소금이 많이 첨가된다.

예를 들어 콩나물국 0.4%에다 반찬으로 나온 제육볶음과, 계란찜, 김치 등에 들어간 소금의 양을 합하면 한 끼 급식에 나트륨량은 2200mg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는 세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茂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영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경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제재부 2200-621 체 육 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전 산 팀 2200-685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 <대 표> 케팅 국 227-9600 <F A X 227-95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기 획 사 입 국 2200-555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광 <대 표> 케팅 국 227-9600 <F A X 227-9500>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기 획 사 입 국 2200-55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	